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하혜진[†]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3년 6월 1일 접수: 2023년 8월 30일 수정: 2023년 10월 25일 채택)

Effect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Career commitment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Later Learner's Students

Hey-Jin Ha[†]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Received June 1, 2023; Revised August 30, 2023; Accepted October 25, 2023)

요 약 :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 J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25세 이상 64세 이하에 입학한 간호학과 재학생 162명이며, 자가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및 multiple regression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몰입,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진학의 동기 순이며, 변인들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29.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진로몰입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의 향상을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자기주도학습능력, 상호작용, 진로몰입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Career commitment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Later Learner's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2 nursing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25 and 64 from 4 universities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and J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4.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ere in the order of career commitment,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motivation for university entrance among, and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s explained 29.5%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older nursing students. Therefore, it is

[†]Corresponding author
(E-mail: hj006204@naver.com)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lan that can promot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y improving the level of career commitment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of older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teraction, Career commitment

1. 서론

국내의 학령인구는 1980년 14,401명에서 2021년 7,700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있는 추세[1]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양적 증가와 심각한 불평등 속 대학 신입생 충족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정부에서는, 재직자 전형, 성인학습자 전형 등의 비전통적인 입학전형 확충 및 제도를 만학도 신입생의 정원을 확대하고[2] 있다. 1995년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여 만학도에게 입학이 허가하기 시작한 이래로 신입생 만학도의 수는 2010년의 약 2,190명에서 2022년 약 100,000명 정도로[3]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만학도는 고등교육의 표준 연령을 초과하여 고등 교육에 참여한 비전통적인 형태의 성인학습자를 의미하며[4], OECD 교육지표에서도 성인의 연령 범주를 25세~64세[5]로 규정한다. 대학 입학전형 자격을 갖춘 25세 이상의 나이에 입학생을 일컫어 성인학습자, 고령학습자, 만학도 등으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해오고 있다[3].

간호학 전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간호사 수요 요구에 대한 정보, 전문 직종에 대한 높은 선호도, 취업의 용이성, 진로 및 취업 방향의 명확성[6] 등과 같은 간호직의 특성으로 타 전공을 졸업했거나, 사회생활 중에 진로를 변경하여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만학도가 증가하고 있다. 간호교육은 이론 및 임상실습 교육과정을[7]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습량, 적응의 어려움,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부담감을 경험한다[8]. 그러므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적응 및 효율적 학습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갖고,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주도하에 학습환경을 조정, 자원 이용 및 관리하고, 학습의 과정을 실행하고 학습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9]을 뜻한다. 즉,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지, 정서 및 행동을 활용하여 학습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체계적이며 통

합적, 적극적 학습활동 능력이라 할 수 있다[10].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인교육의 핵심역량으로 학습자의 대학생 적응[11], 학업성취 성취도 향상 및 간호실무 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12] 갖는 바,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만학도 간호대학생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삶의 가치, 목표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습경로 탐색과 실행하는 자기주도적인 성장의 주체이나[13], 교과과정 특성 상 경험하는 어려움에 더해 기혼자이거나 재직자로서 부모, 직장인, 학생 등을 수행해야 할 다중적인 역할은 이들의 학습 시간 부족, 정체성 혼란, 대학생활 적응, 학업성취 등의 어려움[14]으로 인한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3]. 따라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전통적인 학습자 연령의 간호학과 동급생에 비해 물리적, 환경적 제약이 있으므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학업 적응, 지속 및 전문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소양이라 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의 자발성을 강조하나, 외부의 조력 없이 이 역량을 향상시키기 것은 한계가 있다[12]. 즉, 학습자가 학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은 혼자 수행해야 하는 학습환경보다 교수자와 협력해가며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이란 대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 경험하는 교수자와의 학문적 교류 활동뿐 아니라 동아리 등의 비교과 활동에서의 교류까지를 포괄하는 상호작용을 뜻한다[15]. 대학생활에서 만학도들의 지지자원 중 하나인 교수가 학생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촉진자로서의 역할 수행함으로써 학생은 교수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수립하고, 학습을 진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증진될 수 있다[16]. 즉, 만학도에게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긍정적 자원이자,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몰입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 경로를 결정한 후 그 선택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며[17] 자신의 진로 선택 자신감, 미래 진로에 대한 긍정, 장애물에 대한 인식을 포괄한 개념이다[18]. 진로몰입은 진로결정몰입이나 진로선택몰입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19]. 이러한 진로몰입은 학교에서 졸업 후 직장으로 전환하려고 대학생 시기에 핵심적 발달 과업 중 하나로서[20], 점진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서 시작하여 주위에서 받는 피드백을 거쳐서 확신을 획득하게 된다[18]. 이러한 진로몰입에 성공적인 사람은 자신의 진로결정을 자아개념에 내재화하여 이를 위해 요구되는 학업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제공하고 학업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작용하여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19] 새로운 환경에서 능동적인 생활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로의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21]. 반면, 진로몰입이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 진로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불안,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학업 충실도와 학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22]. 이처럼 진로몰입은 학습자에게 성취감, 자아존중감 등의 긍정적 감정상태를 동반하게 하여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는 심적기제로 작용한다[19]. 이와같이 진로몰입은 진로 선택, 결정의 목표를 수립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적 동기요인으로서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관련성이 예측 가능하나,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진로몰입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관계에 대한 실제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현 대학 교육의 여건과 제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령의 학습자 형태의 대학생에게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연구[8],[10],[12]들도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고등교육의 새로운 유형인 만학도 간호대학생은 대학에서 소수자, 비주류 및 비전통적으로 분류되는 학습자로 학업의 오랜 공백기를 극복하고 대학생화에 적응[6], 학업 지속과 나아가 전문가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대학적응과 관련된 연구[6],[14],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의 연구

[24]와 같은 질적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양적연구는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23] 외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몰입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변인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몰입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 2)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을 확인한다.
- 3)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 4)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J도에 소재한 4개의 대학교의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4개의 대학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25세 이후 대학교에 입학한 자로, 25세~64세까지의 연령[5] 범위에 해당하는 자이다. 본 연구의 표본수는 G*Power3.1.9.7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유의수준 .05, 변수 10개로 설정한 결과 147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10% 고려하여 200부를 배포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제외한 총 16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Self-directed learning ability)을 측정하기 위해 Lee 등[25]이 개발한 도구를 Cho[26]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내용

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1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2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2.2.2.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수-학생 상호작용(Faculty-student interaction)을 측정하기 위해 북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학부 교육 질과 성과를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NSSE) 5요인 모델을 한국 대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변안하고, 타당성 검증을 통해 수정한 Bea과 Kim[27]의 도구를 Hong과 Bea[1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수와 학업 관련 상의, 수업 외 토론과 활동, 진로상담, 학습성과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개 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과 Bea[1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2.2.3. 진로몰입

진로몰입(Career Commitment)을 측정하기 위해 Porfeli et al[17]이 개발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척도를 Lee 등[28]이 변안하고 타당성 검증을 한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인 진로몰입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진로몰입 척도는 2개의 하위영역인 진로몰입 확신과 진로일체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9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몰입의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Lee 등[28]의 연구의 신뢰도는 진로몰입확신Cronbach's $\alpha = .69$, 진로일체감은 Cronbach's $\alpha = .74$ 이었고, 전체 진로몰입 도구의 신뢰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몰입확신은 Cronbach's $\alpha = .65$, 진로일체감은 Cronbach's $\alpha = .82$ 전체 진로몰입 도구의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2.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자료수집 시 각 대학의 방문목적과 시기를 학과장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자료수집 기간을 결정하였다. 해당일에 본 연구자가 수업이 끝난 간호학과 강의실로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연

구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 취지 및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만 강의실에 남아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기 전 연구의 참여 여부는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 설문하는 도중 언제든지 원하지 않을 때는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한 후 자가 보고형식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응답 즉시 회수하였다. 설문시간은 약 10분 이내로 소요되었으며,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대학진학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학지원 동기에서 본인을 선택한 대상자가 가족과 지인을 선택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이 높았다($F=8.375, p<.001$).

3.2.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 자기주도 학습능력 정도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4점 기준에 평균 1.60점($SD=.52$), 진로몰입은 5점 기준에 평균 3.93점($SD=.55$),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기준에 평균 3.83점($SD=.51$)이었다.

3.3.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교수-학생 상호작용($r=.301, p=.004$) 및 진로몰입($r=.493, p=.002$)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진로몰입($r=.184, p=.025$)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Degre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162)

Variables	Categories	n(%)	M±SD	t/F (Scheffe)
Age	25-29	90(55.6)	3.85±0.57	1.314
	30-39	37(22.8)	3.70±0.41	
	40-49	25(15.4)	3.89±0.45	
	≥50	10(6.2)	4.00±0.33	
Gender	Female	131(80.9)	3.83±0.56	-.045
	Male	31(19.1)	3.82±0.56	
Grade	1st	62(38.3)	3.82±0.48	.456
	2nd	41(25.3)	3.88±0.52	
	3rd	36(22.2)	3.75±0.54	
	4th	23(14.2)	3.87±0.56	
Motivation to university entrance	Family ^a	84(51.9)	3.80±0.52	8.375(<.001) a,c<b
	Me ^b	46(28.4)	4.05±0.42	
	Close acquaintance ^c	32(19.8)	3.59±0.51	
Economic status	High	7(4.3)	3.99±0.44	.449
	Middle	130(80.2)	3.02±0.41	
	Low	25(15.4)	3.81±0.49	
Combine study and work	Yes	40(24.7)	3.83±0.47	-.095
	No	122(75.3)	3.83±0.53	

Table 2. The degree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Career Commitmen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162)

Variables	Min	Max	M±SD
Faculty-student interaction	1.00	3.20	1.60±.52
Career Commitment	2.44	5.00	3.93±.55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2.53	5.00	3.83±.51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62)

	Faculty-student interaction r(p)	Career commitment r(p)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r(p)
Faculty-student interaction	1		
Career commitment	.184(.025)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01(.004)	.493(.002)	1

3.4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대학진학 동기의 요인에서 더미변수의 준거집단은 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적 가정인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IF)값을 검정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가 가장 작은 값이 .835로 .1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분산팽창인자(VIF)는 가장 큰 값이 1.197으로 10을 넘는 변인들이 없어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값이 1.883로 2에 가까워, 오차항들의 자기상관성은 문제가 없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몰입($\beta=.404, p<.001$), 교수-학생 상호작용($\beta=.217, p=.003$), 대학진학 동기가 본인($\beta=.185, p=.023$)순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7.848, p<.001$), 본 연구의 변인들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29.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진로몰입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학과 입학 시 지원이 지인보다 본인인 경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몰입,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4점 기준에 평균 1.60점,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연구[15]에서의 1.89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은 비전통적 학습자에 비해 전통적 학습자가 높게 보고한 연구[29]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과 직업 또는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만학도라는 특성[29]으로 학교의 공간 내에서 교수와 충분한 교류 및 관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몰입은 5점 기준에 평균 3.93점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전통적 학습자 형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 3.85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기준에 평균 3.83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비전통적 형태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 3.6점으로 만학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바, 추후 대상지역과 표본의 수를 확대하여 만학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수준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는 대학진학 동기 본인일 경우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성별과 학년[16], 경제수준[32]은 자기주도학습능력에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성인학습자의 간호학과 선택한 동기가 주위의 권유보다 본인의 적성 및 흥미로 선택했을 경우 자기주도학습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16]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로몰입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몰입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자기주도학습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6]이며, 진로몰입의 하위 요인인 진로확신은 자

Table 4. Affected Fa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162)

Variable	B	SE	β	t	R ²	Adj R ²	F(p)
Constant	2.031	.264		7.681 ($<.001$)	.313	.295	17.848 ($<.001$)
Supporter for university entrance(Me)	.238	.105	.185	4.062 (.023)			
Faculty-student interaction	.232	.066	.217	3.486 (.003)			
Career Commitment	.369	.067	.404	5.513 ($<.001$)			

Dummy variable: Supporter when entering nursing department(Close acquaintance:0),

자기주도학습능력, 교수-학생 상호작용 간에 정적 상관관계임을 나타낸 연구[32]와 유사하다. 즉,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몰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을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 이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할 기회와 진로몰입의 수준을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만학도 학생들은 학업의 열정이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시작되나, 이들을 도와줄 지지체계가 없는 환경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수업활동에 있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교수자와 더 많이 교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바[33] 거꾸로 학습 수업방식의 도입을 통한 교수-학생 상호작용 촉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만학도 대학생의 컴퓨터를 활용한 레포트, 그룹과제 등의 학업 유지에 기본적 역량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34],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컴퓨터 강좌, 문서작성요령 등의 만학도 간호대학생 적응프로그램 운영은 기본적 역량 및 교수자와의 지식적, 정서적 지지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학도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과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미흡하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로몰입,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진학 동기가 본인인 순이었다. 먼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진로몰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학생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33]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학습의 수행 이전 단계에서 동기요인으로 목표지향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11], 만학도 간호대학생은 진로몰입[19]의 높은 수준이 학습의 원동력이 되어 자발적으로 학습의 욕구를 진단하고 목표 설정해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성취를 실행해가는 전반적 과정인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 취업라는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취업 시 필수적인 면허취득을 위해 4년의 교과과정 이수를 위해 입한한 목표지향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

편[30]으로 다방면의 진로방향에 대한 구체적 탐색과 개인 역량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진로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이러한 교내 진로전담 기구들의 활동은 진로에 대한 요구와 인식, 특히 비전형적 형태의 만학도 학생들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따라서 대학내의 진로 담당 기구에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에게 신입생 시기부터 졸업 시까지 단계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고, 개인적 특성과 연령에 부합된 진로탐색과 진로준비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진로몰입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32]대상으로 한 연구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교수-학습 역량진단도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연구[27]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할 때 교수의 개입없는 자유로운 학습활동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교수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연구[35]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만학도 간호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 간호대학생도 가지는 학업, 실습, 취업 등의 고민은 공통될 것으로 판단되나, 만학도들의 고민의 깊이는 연령과 맞물려져 고민들의 역치가 낮은 수준일 것임을 짐작 가능하다. 많은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멘토링 프로그램은 상호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키며,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학과에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전담하는 교수들을 두고 전담교수가 멘토가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업 진행, 학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SNS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성적, 진로, 수업 등을 지속적으로 상의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수자의 다각적,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룬 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상호작용의 수준 향상으로 이끌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증진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대학진학의 지원이 본인일 경우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자신의 자율적 선택 및 결정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36]와 일맥상통한다. 후기 청소년들의 37%는 부모가 자신의 진로 결정,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개인적 요인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 이에, 후기 청소년기의 시기를 넘어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은 일-학업을 병행해야 하거나, 또래 학년에 비해 많은 연령 등의 인지적, 시간적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고, 다양한 삶의 경험도 축적하였을 경우를 고려할 때 진학 선택 시 부모, 주변인의 지지보다는 스스로의 확신과 믿음이 더욱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들의 자발적 지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이행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스스로가 학습을 계획해 평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 생각된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으로 되어 학과의 진학을 선택한 만학도 간호대학생에게 학과 구성원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은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학업 유지, 학습 성취 나아가 전문직 간호사로서 의료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관련변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간호학과 진학에 대한 지지를 격려하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몰입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내 담당기구 개설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일 지역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 한계가 있는바, 추후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에 대한 연구가 제한있어, 다양한 변인을 포함해 반복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ternet]. KOSIS [cited 2022]1. Available From: 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vw_cd=MT_ZTITLE&list_id(accessed Aug, 25, 2023).
2. H. M. Cho, "Effects of University Adult Learners' Individual Background, Understanding, Value, and Attitude of Participation about happiness of lifelong learning", *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 Vol.13, No.2 pp. 57-76, (2022).
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ternet]. KOSIS [cited 2022], Available From: 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vw_cd=MT_ZTITLE&list_i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accessed Feb, 10, 2023).
4. K. S. Kim, "A Narrative Inquiry into Later Learners' Motives for Learning at University and Their Changed Life Experiences",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Vol.8, No.1 pp. 257-282, (2020).
5.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Internet].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9[cited 2022], Available From: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9&publSeq=19&menuSeq=0&itemCode=02&language=en#>.(accessed Jan, 11, 2023)
6. S. H. Kim, H. I. Chung. "Adaptation Process of Nursing Students Who Started Their Studies Late",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21, No.1 pp .83-104, (2016).
7. M, R, Han, J, L, Ryu, S, H, Kim, "Mediation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23, No.2 pp. 39-50, (2022).
8. H. S. Oh, "Influence of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8 pp. 311-321, (2017).
9. Candy PC.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 Theory and practice*. CA 94104-1310, Jossey-Bass, 350 Sansome Street, San Francisco, (1991).
10. J. A. Kim.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16, No.2 pp. 145-15, (2021).
 11. J. Y. Won,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on University Freshmen'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8 pp. 89-104, (2022).
 12. M. Y. Moon.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Attitude and Learning Styl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4 pp. 665-67, (2019).
 13. H. K. Park, "A study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process of adult learners", *OUGHTOPIA*, Vol.336, No.2 pp. 99-140, (2021).
 14. H. Kim, "Late-starting Wome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in Department of Nurs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9, No.5 pp. 143-154, (2018).
 15. J. I. Homg. S, H, Bea.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of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Vol.33, No.3 pp. 351-379, (2015).
 16. E, S, Lee, E, J, Bong,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East-Wast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 107-114, (2017).
 17. Porfeli EJ, Lee B, Vondracek FW, *Identity development and careers in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Content, process, and structure*. pp.133-154,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4th ed), NY: Routledge, (2013).
 18. Blustein DL, Ellis MV, Devenis L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 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5, No.3 pp. 342-378, (1989).
 19. E, I, Jeoung, "Mediation of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and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Barrier and College Adapt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2 pp. 1-21, (2014).
 20. Jepson DA,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vocational behavior: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pp.178-215,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York:Wiley. (1984).
 21. H, S, Lee, H, R, Lee, "Impact of self-determ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services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34, No.6 pp. 101-116, (2020).
 22. S. Y, Shin, S, Y, Kwon, "A Structural Analysis on university student s career-decision,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flow, and learning outcom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4, No.7 pp. 167-185, (2017).
 23. M. K. Joo, W. J. Lee, I. Y. Hwang. "Impa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to Major Satisfaction and Campus-life Adaption of Non-traditional learner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 Vol.1, No.1 pp. 47-58, (2017).
 24. E. J. Yang, K. H. Kim. "College Life Adaptation and Loneliness among Non-Traditional Adult Learners Majoring in Nurs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5 pp.

- 461-469, (2017).
25.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pp. 15-109, (2003).
 26. Y, J, Cho,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variables connec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adult learners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Dort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2011).
 27. S, H, Bea, H, J, Kim, "Validation of the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NSSE) Model in the Korean contex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Vol.30, No.1 pp. 499-523, (2012).
 28. B, R, Lee, J, H, Chung, J, L, Lee, "Validation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in Korean (VISA-K)",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Vol.15, No.3 pp. 1163-1181, (2014).
 29. M, K, Cho, M, Y, Kim,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eacher-Student Inter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ore Competency, Learner Motivation, and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 161-170, (2018).
 30. S, I, Han, S, J, Hwang, "Characteristics and Student Engagement of Non-tradition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34, No.1 pp. 51-78, (2021).
 31. Y. S. Song, "The Mediating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on the Influence of Higher Education Adult Learners' Participatory Motivation on Self-Efficacy",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24, No.2 pp. 31-55, (2018).
 32. J, M, Lee, G, J, Lee, "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5, No.3 pp. 133-153, (2017).
 33. S. H. Kim, J. W. Ko,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n Student-Faculty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4, No.4 pp. 263-293, (2016).
 34. M. K. Byeon, S. J. Park, E. Y. Choi.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 With the Application of Content Analysis Technique -.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4, No.4 pp. 65-74, (2020).
 35. M. K. Byeon, S. J. Park, E. Y. Choi,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With the Application of Content Analysis Techniqu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4, No.4 pp. 65-74, (2020).
 36. Simpson V, Richards E, "Flipping the classroom to teach population health: increasing the releva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5, No.3 pp. 162-167, (2015).
 37. O'neil, JM, Ohlde C, Tollefson N, Barke C, Piggott T, Watts D. "Factors, correlates, and problem areas affecting career decision making of a cross-sectional sample of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7, No.6 pp. 571, (1980).